

코스피 2000 시대



코스피지수가 25일 2,004.22로 거래를 마치면서 한국 증시 2,000 시대를 활짝 열었다. 1,000포인트를 돌파한지 18년만이다. 그간 준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에도, 풍족한 한국증시의 한단계 도약을 알리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체질개선이 선진화 이끌었다

펀드시대 자금줄 든든...연내 2,450도 가능

기대감 고조속 과열 논란으로 개미들 부담

엔드 푸어스(S&P)에 이어 무디스마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하반기 한국증시의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유동성의 힘과 무디스 깜짝 선물= 코스피지수가 2,000에 이르기까지는 유동성의 막강한 지원이 있었다. 매일 1천억~3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국내 주식형펀드로 유입되면서 증시에 실린을 지급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주식시장은 강세 기조를 쉽게 꺾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고 이런 토대 위에 지수는 2,000까지 솟아오르며 달려왔다.

무디스의 깜짝 선물도 2,000 돌파에 한 끝을 했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피치와 스탠더드

상향 조정했고 이달 들어서만 신영증권(2,300), 우리투자(2,170), 키움(2,201) 등이 2,000을 훌쩍 넘은 수치를 목표지수로 제시하고 있다.

◇조정 우려도 만만치 않아=전문가들은 증시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2,000에 무난히 안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 강문성 애널리스트는 "2·4분기 GDP 성장률이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어 더욱 강화된 기업 실적이 2,000 이후의 추가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메리츠증권은 올해 코스피지수 목표지수를 2,100에서 2,450으로

놓아 심리적 부담감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며 "종목별·업종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리스크요인이 부각될 경우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전략= 2,000 이후에는 기대수익률을 다소 낮추고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가격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종목 선택에서도 겸증되지 않은 테마주나 재료 보유주보다는 이익모멘텀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우량주를 중심에 둬야 한다. 유망업종으로는 실적 모멘텀을 갖춘 증권, 건설, 조선, IT업종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자주회사가 꼽히고 있다. 메리츠증권 윤세우 리서치센터장은 "대세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간 중간에 짧은 조정이 발생할 경우 유망주 매수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ju.co.kr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5년만에 'A2'로 한단계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한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또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무디스는 2002년 3월 'Baa2'에서 'A3'로 2단계 상향한 이후 5년동안 조정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4월 신용등급 전망만 '안정적'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올린 뒤 이달 3일 등급상향절차에 착수했다.

무디스는 등급 상향의 주요인으로 ▲ 무역·금융·자본시장 자유화 등에 의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국가재정의 안정성 관리 ▲ 차관 대출·2·13합의의 이행 등에 따른 북한 관련 불확실성의 감소 등을 제시했다.

토마스 번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사장은 "한국의 거시경제 성과는 단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무역·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성태(오른쪽 맨 앞) 한국은행 총재가 현오석(왼쪽 맨 앞)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분기 GDP 1.7% 성장

6분기만에 최고치... 전년비 4.9% 성장

민간소비 증가율은 0.8%로 되레 둔화

그는 또 "외환시장의 최소 개입 등 현재의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국가채무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재경재부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평가했던 무디스의 등급 조정으로 다른 신용평가사의 상향조정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신용평가사 중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무디스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등으로 상향 조정에 따라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A2' 등급 상향조정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증시와 협력하기로 했고, 이스라엘 등과 같은 신용등급이 됐다.

한편 무디스는 이날 씨티은행과 대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철도공사, 농협, 부산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수협, 우리은행 등 한국의 15개 기업 신용도 상향했다. /연합뉴스

설비투자와 재화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것도 원인으로 풀이됐다.

제조업은 반도체, 선박 및 승용차 등 의 호조로 전기 대비 3.6%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금융보험업의 경우 증시활황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3.6%, 전년 동기 대비로는 8.1%나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8%에 그쳐 1분기의 1.5%보다 제조업이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홈플러스도 미국산 쇠고기 본격 판매

롯데마트, 이마트에 이어 홈플러스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들어간다.

홈플러스는 26일부터 동광주점 등 전국 20여개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에 판매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냉장육 30kg과 냉동육 20kg이다.

홈플러스는 이어 내달까지 냉장육 100kg을 포함, 모두 200여t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추가로 확보해 전체 점포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오

는 30일부터 백화점 축산매장에서 영광 청보리 한우를 비롯해 합평 등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만을 판매하기로 했다.

광주신세계는 그동안 백화점에서 한우와 함께 호주산 쇠고기를 판매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호주산 쇠고기는 물론 미국산 쇠고기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광주신세계 이마트 매장에서는 이마트의 방침에 따라 기존의 호주산 외에 미국산 쇠고기도 판매할 방침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ju.co.kr

일회용 침 등 한방의료기기

2012년까지 표준화 추진키로

일회용 침 등 한방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구와 기기들에 대한 표준이 정해진다. 산업으로서 전통의학을 육성하려면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5일 한방 의료기술 표준화 추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은 2008년까지 한방 의료기술 표준화센터를 설립하고 표준화 보드맵을 마련한다. 이 로드맵에 따라 한방 치료 및 진단기기의 품질·성능 평가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2012년까지 일회용 침 등 10여종에 대해 새로운 국가표준(KS)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방 의료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산·관·학 표준기술 연구회도 구성하고, 중국·일본 등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 안에 '전통의학분야 기술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세계 각국 전통의학 관련 표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선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WHO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가 오는 2008년 2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미국·중국·일본 등은 이 분야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이미 관련 규격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사 신규설립 허용될 듯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의 신규 설립도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25일 "보험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등 법적 설립 요건은 그대로 두고 금융당국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 심사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보험사가 50여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신규 설립보다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왔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허브 회의에서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자금력과 경쟁력, 전문성을 확보하면 진입을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진입·퇴출 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IG생명 인수를 추진하다 중단한 기업은행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미국 에이스그룹과 독일 건강보험·전문회사인 DVK 등 외국계 보험사가 현재 한국 보험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신규 설립이 허용되면 기존 중소형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M&A를 통해 대형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량생산 가능한 국산요트 첫 개발

전남도-대불대 '등대 1,2호' 명명식

대량생산이 가능한 국산 요트가 전남도 내 대학과 기업에 의해 개발된 25일 첫 선을 보였다.

전남도와 대불대 해양레저장비산업 RIC(지역혁신센터)는 이날 목포 평화광장에서 대량생산 방식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요트인 '등대 1,2호'의 진수식 및 명명식을 가졌다.

FRP(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이 요트는 그동안 국내에서 단발적으로 생산된 적은 있으나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대 1,2호'는 선체 길이 9.7m, 총 중량 6t, 엔진출력 29마력으로 10명이 태고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 크루즈 요트로 대불대와 보성 소재 레저선박 생산업체인 여천마린사가 3년간의 연구와 공동작업 끝에 개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날 첫 선을 보인 요트는 기본틀과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시리즈 생산이 가능해 연속 생산시 월 2~3척도 생산할 수 있다"며 "대량 생산 시스템 아래서 개발된 국내 최초의 요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2회 목포해양문화축제의 개막행사와 연계해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이승훈 대불대 총장, 요트 동호인과 관광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롤렉스 마스터 II' 신제품 출시



롤렉스는 '오이스터 퍼페 쿠얼 GMT-마스터 II'의 2007년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 'GMT-마스터 II'의 스틸 제품보다 한 층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췄으며,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듀얼 타임' 기능을 탑재했다. 새로운 디자인의 케이스와 세라믹 소재의 블랙 희전 베젤을 갖췄고, 그린컬러의 24시간용 시침은 모던한 느낌의 블랙 다이얼과 어울려 세련미를 더해준다.

이 제품은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비롯, 서울·부산 등 국내 8곳의 롤렉스 부티크(공식 지정 판매점)에서 만 구입 가능하다. 문의 062-360-134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